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세계에 대한 해석과 인식

---天地公事(천지공사)를 중심으로---

尹在根*

目次

- I. 논의의 방향
- II. 이상사회 건설의 지표와 세계관
- III. 대순사상의 핵심개념으로서의 천지공사(天地公事)
- IV. 천지공사(天地公事)의 기본구조와 그 표상과정
- V. 맺음말

I. 논의의 방향

종교사상은 그 종교의 교의를 구성하고 있는 관념적 조직체로서 사회에 전승이 되고 있으면서 소속교도들의 신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종교사상은 궁극적 진리와 우주의 형성에 관한 해명, 그리고 인간의 실존과 생의 가치에 대한 해명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해석과 인식 태도 등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현실세계는 진멸지경에 처한 참혹한 세계이며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하여 건설되는 후천선경은 종교적 이상세계가 된다. 이것은 증산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에 의하면 선천이라고 하는 현실세계는 상극의 지배논리에 의해서 포원(抱冤)된 세계이다. 그러므로 증산은 개혁을 통하여 상생의 법리가 운행하는 후천의 선경세계를 개창하려는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종교적 각성을 한 증산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다. 또한 이때의 핵심개념이 바로 천지공사가 된다. 그의 천지공사에 의하여 다가올 후천선경은 정치적 안정과 만민평등이 이루어지는 인존의 시대이며 경제적 안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풍요의 세계이고 사회·문화·종교적 갈등이 해소된 통일의 시대이다.

따라서 후천선경에서는 인간의 본향성과 존엄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인존시대가 되는 것이다. 증산은 세속적 지식과 재리에만 편향된 인간에서 탈피하여 천·지·인 삼계의 이법에 따라서 생을 영위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인간상이 곧 도덕군자, 진인(眞人), 신인(神人)이요 ‘하늘사람’이라고 일컫는 인간상이니 이것이 ‘인존(人尊)’의 인간관념 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미 대순사상논총에 게재한 전편의 논문들¹⁾에서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인간에 대한 해석과 인식의 틀을 인존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한 바가 있다. 이러한 인존관은 내재적 본래 심성을 회복하는 인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세계를 개조해서 후천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가능성의 내재적 존재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자의 전편의 논문들에서 밝힌 바, 인간의 실존과 생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틀을 전제하고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의 인식과 해석의 틀을 대순사상의 기본 구조로 삼아 증산의 종교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천지공사와 연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상사회 건설의 지표와 세계관

종교적 세계관은 세계의 형성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그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종교전통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현상세계에 상대하는 이상세계를 피안(彼岸)의 극락정토, 천상의 천당, 대동사회, 신국(神國) 등으로 이상화시켜서 표현하는

1) 윤재근(1999), 인존사상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대순사상논총 제7집, pp.315-344; 윤재근(2001), 심학(心學)적 인간 심성과 무자기(無自欺)의 인간이해, 대순사상 논총 제13집, pp.135-179; 윤재근(2002), 대순사상에 있어서 인존의 교육적 인간상 탐구, 대순사상논총 제14집, pp.149-181 참조

것이며, 이것은 또한 현실세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상세계를 피안의 세계 또는 절대타계로 보지 않고 현상세계를 구체적인 이상세계로 개조하려는 신앙형태도 존재한다.²⁾ 대개의 경우 18세기 이후 등장하는 종교전통에서 보여지는 세계관이 그러하다.³⁾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세계관도 물론 후자의 관점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천(先天)·후천(後天)이라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선천의 우주 구조와 후천의 우주 구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우주(宇宙)의 의미⁵⁾는 공간과 시간을 내포한 말로서 선천의 시간에서는 우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후천의 시간에서는 주우(宙宇)로 조성된다. 그 예를 증산의 친필이라고 전하는 현무경(玄武經)중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우영가(宙宇詠歌)’, ‘주우수명(宙宇壽命)’에서의 ‘주우(宙宇)’라는 글귀가 그것이며 이 때의 주우(宙宇)는 곧 후천에서의 운로(運路)의 토대가 된다. 즉 선천에서는 우주가 되었던 주장이 후천의 시점에서는 거꾸로 주우(宙宇)가 주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의 시대 전환을 의미한다. 즉 후천은 선천이란 시간대에서의 전환을 뜻하는 관념체계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고의 예는 우주가 주우로, 선천이 후천으로, 양기(陽氣)에서 음기(陰氣)로, 천존(天尊), 지존(地尊)에서 인존(人尊)으로의 전환⁶⁾ 등을 들 수 있겠다.

우(宇)는 공간으로서의 방위(方位)와 상하(上下)의 위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간개념의 팔방(八方)과 상하수직의 이방(二方)을 합친 시방

2) 대순종학교재연구회 편(1998), 대순사상의 이해, 경기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pp.131-135.

3)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한국 종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수운(水雲)의 동학의 경우도 지상천국의 건설을 기치로 삼고 있거니와 일부(一夫) 김항의 정역사상도 음양의 교역에 의한 후천의 선경이 현실을 기반한다고 본다. 소태산에게서 보이는 개벽도 인간정신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세계의 개벽인 것이다.

4) 장병길(1989),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pp.42-48.

5) 우주(宇宙)란 글자에서 우는 하늘, 땅 등의 공간을 말하며, 주는 시간을 말한다. (莊子, 知北遊, 廣梁楚 참조)

6) 이에 대한 해석과 논리적 근거도 분분하나, 본 연구자는 이를 간단하게 수동적 외계 사물에 대한 인식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으로의 전환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十方)을 일컫는 것이다.⁷⁾ 주(宙)는 과거와 내금(來今;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주는 보통 공간의 육합(六合:天·地·東·西·南·北)과 시간의 육합(六合:孟春과 孟秋; 仲春과 仲秋; 季春과 季秋; 孟夏와 孟冬; 仲夏와 仲冬; 季夏와 季冬)을 통합한 말이 된다.⁸⁾

우(宇)의 구조를 살펴보면 천(天)이 있고 천에는 오성(五星)⁹⁾·칠사(七舍)¹⁰⁾·팔풍(八風)¹¹⁾이 있으며, 오관(五官)¹²⁾·육부(六府)¹³⁾·구야(九野)¹⁴⁾ 그리고 십이진(十二辰)¹⁵⁾·십이율(十二律)¹⁶⁾·이십팔수(二十八宿)¹⁷⁾·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¹⁸⁾등이 있다.¹⁹⁾

주(宙)에 관련하는 시간 개념은 일반적인 논리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편적으로 지구의 자전주기를 시간의 기점으로 삼아 이것을 하루라고 하

7) 장병길(1989), 앞의 책, p.49.

8) 위의 책, p.48.

9) 금성(金星), 목성(木星), 수성(水星), 화성(火星), 토성(土星)

10) 실(室), 당(堂), 처(處), 문(門), 항(巷), 위(衛), 야(野)

11) 명서풍(明庶風;東方), 경풍(景風;南方), 창합풍(闔闔風;西方), 광막풍(廣莫風;北方), 청명풍(清明風;東南方), 융충풍(融虫風;東北方), 양풍(涼風;西南方), 부주풍(不周風;西北方)

12)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13) 원양부(元陽府;心), 난부(蘭府;肝), 무극부(無極府;膽), 몽부(蒙府;脾), 변부(變府;肺), 태화부(太和府;腎)

14) 조천(鈞天;中央), 창천(蒼天;東), 호천(昊天;西), 염천(炎天;南), 현천(玄天;北), 변천(變天;東北), 유천(幽天;西北), 주천(朱天;西南), 양천(陽天;東南)

15) 십이진(십이궁)은 춘분을 기점으로 황대를 열두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백양궁(白羊宮), 금우궁(金牛宮), 쌍자궁(雙子宮), 거해궁(巨蟹宮), 사자궁(獅子宮), 실녀궁(室女宮), 천평궁(天坪宮), 천갈궁(天蝸宮), 인마궁(人馬宮), 마갈궁(磨羯宮), 보병궁(寶瓶宮), 쌍어궁(雙魚宮)

16) 육율(六律)과 육여(六呂)의 십이음을 말한다.

육율(양성) : 태족(太簇), 고세(古洗), 황겸(黃鍾), 이칙(夷則), 무사(無射), 유빈(蕤賓)

육여(음성) : 대여(大呂), 중여(仲呂), 남녀(南呂), 응종(應鍾), 임종(林鍾), 협종(夾鍾)

17) 동(東) : 각(角), 항(亢), 저(低), 방(房), 심(心), 미(尾), 기(箕)

북(北) : 두(斗), 우(牛), 여(女), 허(虛), 위(危), 실(室), 벽(壁)

서(西) : 규(奎), 루(婁), 위(胃), 양(昂), 필(畢), 자(觜), 삼(參)

남(南) : 정(井), 귀(鬼), 류(柳), 성(星), 장(張), 익(翼), 진(軫)

18) 봄(春) : 입춘(立春), 우수(雨水),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清明), 곡우(穀雨).

여름(夏) : 입하(立夏), 소만(小滿), 망종(芒種), 하지(夏至), 소서(小暑), 대서(大暑).

가을(秋) : 입추(立秋),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

겨울(冬) : 입동(立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 대한(大寒).

19) 장병길(1989), 앞의 책, p.49.

고 24등분한다. 그 24시간은 낮과 밤, 즉 상오(오전), 하오(오후)로 나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주(宙)에 관한 관점은 대순사상에서의 종교의례와도 관계한다. 즉, 역법에 따른 주 외에 인위적인 주(週)의 주(宙)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週)는 독창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일(五日)의 시간을 일주(一週)로 하여 일년을 72주, 윤년에는 73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기도나 공부 등의 기준으로 삼아 종교적 의례를 행하고 있다.

이외에 또 하나의 주(宙) 즉 시간에 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윤(閏)-세(歲)-장(章)-회(會)-통(統)-원(元)이라는 시간관이다.²⁰⁾

칠윤십구세(七閏十九歲)란 시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태음태양력에 서 말하는 십구년 칠윤법(十九年七閏法)에 해당된다. 이것은 삭망주기와 태양년 사이에 생기는 일수의 차에 따라서 계절에 생기는 차이를 메우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²¹⁾

그 계산대로 하면, 윤달의 수는 8태양년에는 3개월을, 19태양년에는 7개월을, 27태양년에는 10개월을 두어야 역년(歷年)과 계절에 맞게 된다. 이 중에서 19태양년에 7개월을 둔다는 것이 칠윤십구세이다. 이 때의 칠윤십구세란, 235삭망월의 길이이고, 일수로는 6,940일의 길이이다. 그 길이가 곧 장(章)이다. 말하자면 주(宙), 즉 시간의 주기(週期)라는 데에 주목이 가는 것이다. 그 주기에서 이십칠장(二十七章)이 일회(一會)가 되고, 회가 세 번이면 통(統)이 되고, 통의 세 주기가 원(元)이 된다.²²⁾ 이 주기에서 다시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알게된다.

그리고 세(歲)-장(章)-회(會)-통(統)-원(元)의 주기를 상원갑(上元甲)이라 하고, 이 상원갑의 주(宙, 시간)의 기간이 끝나면 하원갑(下元甲)의 주로 옮기는데 하원갑의 과정은 다시 세-장-회-통-원의 과정을 순환왕복 한다. 지금까지

20) 전경의 교운 2장은 도주 정산에 관한 기록으로, 26절에서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도(道)가 흥하는 과정을 전교(傳敎)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면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시간관념을 짐작할 수가 있다.

21) 태양년과 삭망월의 비는 $12.36823(=365.24220 \div 29.53059)$ 란 계산인데, 이 소수부 0.36827(월)은 10.875일이다. 이것이 쌓이면 한 달을 이루고 평년은 12달의 일년이 되고, 윤년에는 13달의 일년을 만든다.

22) 七閏十九歲爲章 二十七章是會當……三會爲統 三統爲元 循環往復互無疆 (전경, 교운 2-26)

지 살펴 본 선·후천은 시간대의 양면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의 운행원리에 대한 시공간의 관념은 동양의 전래적인 역학(易學)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경에 의하면 증산은 유불선 음양참위(陰陽讖緯)를 통독하였고²³⁾, 영가무도(詠歌舞蹈)의 교법을 문도에게 가르치고 있던 일부(一夫) 김향을 만난 적도 있다. 일부는 정역을 주창하고 황극론을 펴서 우주운행의 원리를 새롭게 재편한 사람이다.²⁴⁾

그런데 증산은 일부의 정역은 물론이거니와 복희(伏羲)와 문왕(文王)의 괘도(卦圖) 그리고 하도(河圖), 낙서(洛書)의 운행 원리를 이미 관철하고 있었다.²⁵⁾ 그러나 증산은 그것들의 우주론적인 설명에서 벗어나서 선천에서 후천에 이르는 과정, 즉 도수를 더욱 중시하였던 것 같다.²⁶⁾ 이것은 우주의 순회로 인한 회로(回路)보다는 ‘선천에서 후천으로’라는 종교적 세계관에서 살필 수가 있다. 이 증거는 상제가 선천을 뜬어서 후천에 맞추었다거나,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였다거나, 또는 신명들을 좌정케 하였다는 등²⁷⁾의 언표에 의해서 굳어진다.

그렇다면 과연 증산은 종래의 괘도나 하도(河圖), 낙서(洛書) 또는 정역(正易)에서의 선후천을 어떻게 취급하였던가.

하도는 우주의 창조를 설계한 것인데, 그 설계대로 조화되지 않아서 낙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주만상은 난양난음(亂陽亂陰)에 의해서 어지러워졌다. 따라서 불식난세(不息亂世)하고 열국(列國)이 난립하고 귀천이 극심하고 빈부의 차가 우심(尤甚)하여 인심화정(人心和滯)을 찾아볼 길이 없어졌다.

이와 같이 보면 괘(卦)나 괘수(;度數)의 바로잡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초인간적인 인격자가 전제되어야 함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대순사상은 증산이 강세하기에 앞서 수십 년 동안 탁

23) 전경, 행록 2-1 참조.

24) 이정호(1996), 원문대조국역주해 정역, 서울:아세아문화사, pp.111-113.

25) 현무경; 전경, 공사 1-18, 30; 공사 2-16; 교운1-52, 53 등 참조.

26) “...모든 사사로운 일이라도 천지공사의 도수에 붙여두면 도수에 따라서 공사가 다 풀리니라.”고 이르셨도다(전경, 행록 4-29)

27) 전경, 공사 2-16 참조.

운(托運)하다가 드디어 외재화하여 도수를 조화정(造化定)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 복희괘나 문왕괘를 지양한 증산의 변역(變易) 사상은 김일부의 정역괘를 전제하면서 이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복희역을 선천역, 문왕역을 후천역이라고 했을 때, 이의 운행원리가 궤적을 달리하면서 일부의 정역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는 복희와 문왕의 역을 선역(先易), 즉 과거의 역으로 돌리고 정역을 내세워 한국의 인연과 지연에 맞는 우주운행의 원리를 주창한 것이다. 이를 후천역(後天易)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복희괘와 문왕괘,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 잡았던 정역은 증산의 변역(變易)으로 재해석된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샷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²⁸⁾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러나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²⁹⁾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땅을 뜯어고치니 이제 하늘이 되고, 하늘을 뜯어고치니 이제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도의 건곤(乾坤)의 위(位)를 바꾼 것을 의미한다.

특히 증산의 변역에 대한 사유는 동일한 인물이나 사물 또는 사상이 다른 것과의 관계에 즉응하여 ‘음에서 양’ 혹은 ‘양에서 음’으로의 교체 변화를 중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역(易)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란 교체의 원리가 강조된다. 그리고 이 원리에서는 모순을 매개하여 새로운 긍정이 획득된다. 예를 들면 증산의 변역은 복희괘나 문왕괘나 또는 정역괘의 모순, 즉 팔괘의 모순을 넘어서 괘의 위(位)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³⁰⁾

28) 전경, 교법 3-4.

29) 전경, 교법 3-1.

30) 장병길(1977), 증산교의 변역신앙에 관한 논고, 증산사상연구 3집, 서울:증산사상연구회, pp.51-54 참조.

구 분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	☱	☲	☳	☴	☵	☶	☷
복희(伏羲)	南	東南	東	東北	西南	西	西北	北
문왕(文王)	西北	西	南	東	東南	北	東北	西南
일부(一夫)	北	西	西南	西北	東南	東北	東	南
증산(甌山)	北	西	西北	西南	東北	東南	東	南

증산의 변역은 그 세계실현의 과정에 있어서 정역이나 그 외의 괘에서의 음과 양의 균형이 반환되는 순환만의 과정이 아니라, 최초의 미세한 것을 완성하였다는 발전적인 변화를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음과 양의 상보관계를 전제하면서 다른 괘도와는 달리 최후의 후천개벽 즉, 이상세계의 현실화라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후'라는 관념에서 일종의 종말과의 교체가 예측되는 것이다. 그래서 괘를 보면 정역은 복희와 문왕역의 종말이고 증산의 변역은 정역과 교체되면서 종말의 완결이 된다. 그리고 종말의 완결은 선천의 상극상의 종지부라는 대망(待望)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준다.³¹⁾

따라서 증산의 변역은 동일한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련에서 음과 양이 변화하는 '과정'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 과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 곧 '천지공사'인 것이다.³²⁾

Ⅲ. 대순사상의 핵심개념으로서의 천지공사(天地公事)

증산은 당시의 현실적 질곡에서 시달리던 기층 민중들의 구제를 충분히 의식하였다. 그러한 현실적 의식은 변혁된 종교적 사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사상으로 구현되었는데 그것을 묶은 개념을 '대순(大巡)'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 불. 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

31) 위의 논문, pp.55-56 참조.

32) 윤재근(2001),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제Ⅲ장 참조.

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 ...33)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원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34)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35)

위의 인용문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조선후기사회의 종교적 공백에서 보이는 새로운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기층민들의 성화(聖化)의식이 충분히 반영된 사례이다. 또한 이 인용에 의하면 증산이 이 땅에 현현하기에 앞서 대순(大巡)이라는 종교 행위가 선행되는데,³⁶⁾ 이것은 대순사상에서의 종교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의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종교적 정황 안찰(按察)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순’이라는 용어를 정의한다면 “天·地·人 三界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돌며 정황을 살피고 연구하여 종교적 구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구체적 종교 행의(行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순은 종교적 각성을 한 증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제’가 현실 인식을 통하여 종교적 성현(聖顯)을 하게 되는 것이다.³⁷⁾

그러므로 종교적 행위로서의 대순은 단순한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한계상황을 인식한 뒤에 이어지는 생민 구제의 성스러운 종교 의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그 예가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과 같이 원율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만고에 쌓인 원을 푸는 것이다.³⁸⁾

33) 전경, 예시 1.

34) 전경, 교운 1-9.

35) 전경, 권지 1-11.

36) 大巡宗教文化研究所 編(1988), 大巡思想의 現代의 理解, 서울: 大巡眞理會出版部, pp.60-61.

37) 윤재근(1996),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 연구 제2집,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pp.109-110. 참조

또한 증산은 혼란과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광제(廣濟)하여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고자 천지를 개혁하고 새로운 배포(配布)를 꾸미는 진법을 폈다. 이것을 일러 ‘공사(公事)’라고 한다. 이러한 공사는 ‘천지공사’ 또는 ‘삼계공사’라고도 표현한다. 즉 공사의 범위가 인간의 세계만이 아닌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외계 전체를 객체로 한다는 것이다.

원래 공사(公事)라는 말은 공적인 일을 뜻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관아에서 관장이 송사나 공무를 처결하던 행위를 일컬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公)’의 내용이 증산에 있어서는 상제(上帝)의 자격으로 천지 또는 삼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세계의 구원과 우주질서의 변혁이라는 광범위한 종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은 이러한 일련의 종교적 행위를 실제로 행하고 있다.³⁹⁾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맏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⁴⁰⁾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오.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 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⁴¹⁾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⁴²⁾

38) "... 나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문힌 무명의 악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 (전경, 권지 1-11)

39) 김탁(1995),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pp. 59-67.

40) 전경, 공사 1-3.

41) 전경, 공사 2-3.

42) 전경, 예시 23.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⁴³⁾

이미 앞의 세계관을 고찰하면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거니와, 위의 내용에서 증산은 천지공사를 집행하게 되는 현실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즉 삼계공사를 감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외계자연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에 쌓이고 맺혀서 천지가 상도를 잃은 부정적 현실관에 기인한다. 또한 현하의 조선국 주변 정세가 각축의 양상을 보이는 위급한 상황이며 물질문명에 대한 인간의 편견과 현실적 상극의 실상이 우주의 질서를 교란시킨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상극과 원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정적 현실을 타개하고 또한 혼란한 질서를 바로잡는 문제는 우주질서의 재정립에서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를 ‘천지공사’ 또는 ‘삼계공사’라고 하며 그것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천지공사는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후천의 선경을 건설한다는 명확한 종교적 지향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천지공사를 증산이 직접 행하는 이유는 기존의 종교전통—儒, 佛, 仙—이나 사유체계로 인간과 세계를 제도함에는 한계를 가지며, 이제부터는 그것들의 진액(津液)을 뽑아 쓰되⁴⁴⁾ 새로운 진법 도수에 맞추어 써서 후천이라 일컫는 새로운 종교적 이상세계를 열고 인간생활의 모든 질서를 결정하는 천지 운로의 대회전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인 천지공사는 ‘삼계를 개혁하여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지상천국 건설을 꾀하려는 일련의 종교 행위’이며 ‘이상실현의 현실화 작업’이기도 하다.

기성의 종교 개창자가 종교적 이상사회를 형이상학적으로 설정하거나 사

43) 전경, 교법 3-23.

44)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 (전경, 예시 13)

후세계 또는 피안의 이상향으로 관념화시킨 것에 대해 증산은 현실세계를 선경화(仙境化)하는 사교의 대전환을 이룩했다. 또한 종교적 이상세계가 천지공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종교 전통과의 차별성과 사상적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모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며 이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주도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천지도수의 조정이라는 우주 질서의 재편성은 일정한 때가 되면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신명적(超神明的)이며 초인간적인 존재자에 의한 역사(役事)를 필요로 한다. 천지공사의 주체인 증산은 개벽(開闢)이라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천세계의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후천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공사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선천의 현실사회와 후천의 이상사회는 개벽을 기준으로 대별되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개벽이라는 방법적 공사전개로 참혹한 세계의 현실을 마무리하고 ‘천지를 뜯어고치는’ 사회 변혁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증산은 개벽장(開闢長)으로서,⁴⁵⁾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거니와, 개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나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⁴⁶⁾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의 선천은 상극지리(相剋之理)에 의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참혹한 진멸지경(盡滅之境)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참상을 변혁하고자 증산은 개벽으로써 상생지도(相生之道)를 운행하고 이상세계인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것이다.

45)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 (전경, 공사 1-1)

46) 전경, 공사 1-2.

이와 같은 이상세계의 건설은 상극상이 벌어지게 된 시초를 문제삼아 근원적 해결을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시초가 인류의 기록의 시작이고 원한이 맺힌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⁴⁷⁾이다. 이러한 원의 종자가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진멸지경에 이른 것이니, 파멸에 빠진 인간을 건져서 포원(抱冤)을 해소시키고 본래적 인간 심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해원(解冤)인 것이다. 즉 증산은 天·地·人 삼계의 대권을 갖고 인간과 신명의 세계에 누적된 원한을 본질로부터 해소하자는 것이다.⁴⁸⁾

나아가 이러한 원한 해소의 내용은 왕후장상의 뜻을 펴지 못한 동학신명의 해원⁴⁹⁾, 후사를 두지 못한 중천신(中天神)에 대한 해원⁵⁰⁾등 신명계의 해원과 더불어 사회제도와 신분계급 등의 현실적 상황속에서 야기된 불평등한 원한을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해원에 대한 증산의 주체적 종교행위의 이면에는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거나 신명을 조화하는 질서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증산에 의하여 ‘개벽’이라는 명명하에 수행된 천지공사는, 모순된 사회현실의 주체적 변혁을 통하여 신질서의 이상향인 후천의 선경을 지상에 구축하고 기층민을 광구(匡救)하는 종교적 목적실현

47)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전경, 공사 3-4)

48) 윤재근(2001),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의 문제, 종교연구 제21집, 서울:한국종교학회, pp.79-81. 참조

49) ...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 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이 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 ... (전경, 공사 2-19)

50)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어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 하노라. (전경, 공사 1-29)

의 대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은 동토에 현신한 것이고 천지인 삼계를 개혁하는 종교적 변혁을 감행한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상극에 지배된 진멸지경의 참혹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현실적 모순의 해결책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세계의 개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의 개조는 인간과 신명의 심층적 내면으로부터의 자기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단주까지 소급되는 제일원인의 해소에서 온전한 개혁공사의 전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야만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은 세워지는 것이고 세계의 민생은 종교적 덕화(德化)로 뜯기고 새로 세워진 변혁된 세계에서 '오만년'⁵¹⁾을 누리는 것이다.

IV. 천지공사(天地公事)의 기본구조와 그 표상과정

대순사상의 핵심은 참혹한 현실의 선천 세계를 개혁을 통하여 후천의 이상세계로 변혁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천지공사⁵²⁾이다. 따라서 천지공사는 인간과 외계사물의 구원에 대한 실천행위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천지공사는 개별적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진위여부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증산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변혁 즉 '개벽(開闢)'을 집행한 인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세계 구원의 종교적 행위로서 그의 천지공사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여러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⁵³⁾

인간세계의 현실인식에서 출발하는 천지공사는 인간이 원상(原狀)의 정상

51) 후천 오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 (전경, 공사 2-17)

52) 증산은 혼란하기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서,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광제(廣濟)하여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고자 천지를 개혁하고 새로운 배포를 꾸미는 법을 폈다. 이 일을 공사(公事)라 한다. 이 공사를 증산은 예전부터 이어 온 남이 지은 것이나, 낡은 것을 그대로 써서 불안과 위구를 간직하는 것이나 판 안의 법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판밖에 남이 쓰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꾸미는 완전한 역사(役事)라고 선포하였다.

53) 김탁(1995), 앞의 논문, pp.90-91 참조.

생활에서 벗어나 이상세계를 희망하고 있다는 종교적 전제가 있으며 종교사상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생활에 대한 불만의식에서 보다 향상된 생활이나 사상을 희망한다는 현재적 관점이다. 이는 대개 질병이나 경제적 빈곤 또는 어떠한 재앙 등의 곤경이나 위기상황이 절박할 때 스스로의 해결 능력이 부재함을 깨달은 인간적 자기소외의 한계상황에서 비롯되며 자기를 넘어선 초인간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 그 때의 힘이 초월적 신격에서 나오거나 초자연적 주력(呪力)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인간내면의 심력(心力)에서 연유하거나 간에 그 유형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절대타자와 자기와의 내면적 분유(分有)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구원의 관점에서는 타력적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⁵⁴⁾ 그러나 그 절대타자의 절대타력이 자기 안에서 나누어 공유되고 내면화되어 자기 객관화가 성립될 때는 자력적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현실적 불만의식과 한계상황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앞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이를 다시 살펴보면 증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⁵⁵⁾

본 연구자는 위의 인용문에서 전장에서 언급한 천지공사의 논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정—결과’ 또는 ‘~에서~으로~하다’의 형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그 내용에는 이미 이상사회의

54) 장병길(1979), 해원공사의 본질고, 증산사상연구 제5집, 서울:증산사상연구회. pp.60-66.

55) 전경, 공사 3-4.

건설에 대한 가치지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절대타자와 자기와의 내면적 분유의 관계에서 해원이 가지는 천지공사의 기본적인 원리가 표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것을 보다 쉽게 설명한다면, 인간세계는 파멸의 세계이고 파멸의 참혹한 현실은 인간들이 저지른 원(冤)에 기인하는 불상사이다. 그 불상사인 원의 시초는 요의 단주가 정치적 불공정에 대하여 제한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품은 단초에서 비롯되고 그 뿌리는 또 하나의 원의 가치를 쳐서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는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는 파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원으로 인해서 생긴 참상과 불상사를 해결하려면 원(冤)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화적이거나 전설적인 소재를 이용한 것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의 인과 관계이기보다는 형이상학적 제일원인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조망되어야 할 것이다.

원이 이와 같다면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게 되는 본유적 감정이며 정의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병진하면서 벌이는 인간 감정의 과정현상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정당성이 침해된 부당성의 의식에서 억울하고 원통하며 분통이 터지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들이 상호 충돌하여 세상에는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참혹한 실상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의 삼계가 고된 존재의 세계로 관망되는 한에서는 현실적 가치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극주의는 인간들의 실제 생활에서 얻어지는 경험의 세계이며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겠고 증산은 이것을, 원을 품게되는 포원(抱冤)의 현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포원은 그의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 대치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인 동시에 시대적 변천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증산은 이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는 한계상황을 인지하고 인간의 제한 상황을 전제하여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초신명적 내지는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포원의 해소를 생각한 것이고 삼계구원의 실현을 조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세계이며 종교적 경험의 세계이다.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해서 선도나 불도나 유도나 서도 혹은 법술(法術)로도 능히 난국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판이 넓고 복잡하므로 그것들의 진수를 뽑아서 새로운 진법도수에 옮겨서 써야한다.⁵⁶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의 창출을 위해서는 옛 질서를 뜯어 고치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새롭게 마련하는 역사(役事)는 선천시대에서는 사사물물(事事物物)이 서로 분립하고 대립하면서 성장하는 상극법(相克法)에 지배되었는데 그 시대가 반전되어 후천시대의 새 세계가 열리고 사사물물이 상생법(相生法)에 지배되어 성실(誠實)하고 관왕(冠旺)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⁵⁷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 간	공 간	종 교	기능(機能)	지배법리	시공(時空)
선천(先天)	삼계개별	선 도	포태(胞胎)	상 극	우주(宇宙)
		불 도	양생(養生)		
		유 도	욕대(浴帶)		
개 벽					
후천(後天)	삼계전체	진 법	관왕(冠旺)	상 생	주우(宙宇)

56)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나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전경, 예시 73);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전경, 예시 13)

57) 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

冠旺

兜率虛無寂滅以詔(전경, 교운 1-66, 현무경 24면 참조);

天地之用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死葬而已(전경, 제생 43절 참조.)

위 도식의 논리를 살펴보면 공간을 중심으로 한 선천의 현실세계는 천·지·인의 삼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종교적으로는 선도·불도·유도로 분립한다. 그 기능으로 보면 선도는 포태(胞胎; 씨앗을 간직한 상태)의 역할을 하고, 불도는 양생(養生; 성장하는 과정)의 역할을 하며, 유도는 욕대(浴帶; 성숙의 단계)의 역할을 한다. 선천이 공간상으로 갈라져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종교적으로 분립하는 것도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극의 이치는 사사물물을 배종(胚種)하고 성장케 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반해서 후천의 이상세계에서는 상생의 법리에 의해서 공간상으로 하늘, 땅, 사람의 삼계가 서로 융즉(融卽)되고 사사물물은 다 자라서 결실하고 저장된다.⁵⁸⁾ 이런 분립·상극에서 융즉·상생의 세계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신명(超神明)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자의 조화에 의해서 되는 것이며 그 조화의 주체가 바로 종교적 자기각성을 한 증산 자신이다.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하여 우주를 조화하게 된 까닭은 삼계의 운도수(運度數)에 부정(不正)과 불응(不應)의 현상이 생기고 우주 안에 있는 신명들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에서 제각기 투쟁하는 상극이 벌어져 서로가 원한을 품게 되고 급기야는 진멸(盡滅)하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⁵⁹⁾

이에 따라 증산이 세상을 제도하고 병겁과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하여 차안의 세계에 선경을 건설하는 덕을 베풀게 된 것이며 이를 일러 천지공사라고 했다. 그 공사와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조화의 극적 모티브가 곧 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증산의 천지공사의 대역사는 상제임을 자임하며 하늘, 땅, 사람의 세계를 통할하는 삼계대권(三界大權)으로써 1901년인 신축(辛丑)년부터 9년 동안 계속되다가 기유(己酉)년인 1909년에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그 9년 동안의 대역사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뜯기고 헐려서 새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후천선경이라고 불리우는 지상의 천국이 마련되는 것이다.⁶⁰⁾

58)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니라.(전경, 교법 3-27)

59) 장병길(1989), 대순종교사상, 서울:대순진리회출판부, pp.95-96.

60) 위의 책, p.97.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천지공사는 종교적으로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여 그 내용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편성하고 목적하는 바의 의미를 교육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구조나 가치지향성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왜냐하면 종교적 언어가 대부분 상징적 언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상징적 언어는 바로 당해 종교의 세계상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장병길의 분석적 방법을 토대로 전경의 공사편 중 일부를 그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⁶¹⁾

증산은 천지공사를 역사함에 있어서 유질형상(有質形象)의 체(體)를 사용하여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⁶²⁾는 그의 말대로 사물을 목적하는 바대로 변용 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공사에 의하여 변화·개조된 사상(事象)들은 “문명이 삼천국에서 꽃피고, 도술의 운이 9만리에 통한다”⁶³⁾는 종교적 경험세계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공사는 현존태의 체(體)를 사용해서 사사물물의 변화 내지는 개조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종교적 이상태로 재창출되는 ‘체(體)-화(化)-명(明)’의 노정을 밟게 된다. 체로서는 정기(精氣), 주언(呪言), 말씀 또는 어떤 물질이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화로서는 이술(理術), 기술(氣術), 신술(神術) 또는 선술(仙術)이나 도술(道術), 묘술(妙術)이 사용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하면 현존태로서의 체가 술에 걸려서 변화 내지 개조되는 과정을 거친다

61) 그는 천지공사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전경의 공사편 3장 41절에 기록된 ‘득체(得體)-득화(得化)-득명(得明)’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장병길, 앞의 책, pp.97-101 참조) 이는 동양철학적 체(體)와 용(用)의 관계에 주목한 듯하다. 그러나 그 용어의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여기서는 ‘체(體)-화(化)-명(明)’으로 표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종교적 변화행위에 대하여 현상자체의 원인을 체(體)라고 하고 변화의 수단이나 과정을 화(化)라고 하고 종교적 행위에 의한 변화의 결과를 명(明)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62) 전경, 교법 3-41.

63)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 금불(六丈金佛)이 화위 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花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 (전경, 예시 14)

는 것이다.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예를 전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형(五仙圍基形)이 있고 기변(碁變)은 당요(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나라. 네 명당은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무안(務安) 송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과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과 태인(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二十四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며 해변에 있어 해왕(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山君), 변산은 해왕(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⁶⁴⁾

② 상제께서 김 형렬을 앞세우고 익산군 만중리(益山郡萬中里) 황 사성(黃士成)의 집에 이르러 머무실 때 어떤 사람이 얼굴에 노기를 띄고 문을 뚫어 닫는 바람에 벽이 무너졌도다. 이것을 보시고 곧 상제께서 같은 동리의 정 춘심(鄭春心)의 집에 옮기시니라. 황사성의 부자가 춘심의 집으로 상제를 뵈옵고차 와서 전말을 아뢰이니라. 황 사성의 부친 숙경이 「황 참봉(黃參奉)으로부터 돈을 얻어 썼으나 그는 죽고 그 아들이 사람을 시켜 숙경에게 갚을 것을 독촉하려 온 것인데 그 자가 빛을 갚지 않으면 경무청에 고발하여 옥에서 신세를 썩게 하리라고 위협하고 돌아가는 마당에 상제께 들린 것이외다.」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벽을 무너뜨렸으니 그 일은 풀리리라. 샷갓 한 뉘과 필목 한 필을 사 오라」고 숙경에게 이르시고 「이것은 양자 사이의 길을 닦는 것이니라」고 알리고 「이후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르셨도다. 연말에 순검이 채무관계로 숙경을 잡으므로 숙경이 순검에게 채권자의 집에 들러 주시기를 간청하니 순검이 그 채권자의 집에 데리고 가니 참봉의 아들이 숙경이 잡혀온 것을 보고 힐난하거늘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저 어른은 너의 부친의 친구이신데 네가 차마 그 분을 옥에 가두게 하다니 금수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면서 아들로부터

64) 전경, 공사 3-5, 6.

증서를 빼앗아 불살랐도다.⁶⁵⁾

①의 예는 '정기'를 뽑는 기술(氣術)로 반목투쟁을 없게 하는 것이고, 체(體)는 정기, 화(化)는 기술이며 그로 인해서 생긴 명(明)은 반목이 없는 화평과 상생(相生)의 질서이다.

②의 예는 삿갓, 필묵이란 물질을 체로 써서, 이술(理術)에 의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화해를 성립시키는 명(明)이 얻어진 예이다.⁶⁶⁾

이러한 분석 내용은 과학적 논리구조와 흡사한 면이 있는데 즉 과학적 기술도 물체를 이용하여 어떤 방법을 거쳐서 전제하였던 목적의 결과를 얻어 낸다는 논리구조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양자 사이의 차이는 과학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실세계라면 천지공사는 그것과는 다른 술(術)을 사용하여 과학적인 증명 이상의 것을 밝히려는 종교에 있어서의 경험세계라고 보겠다. 우리는 고래로부터 전래되는 천안통(千眼通)이니 천이통(千耳通)이니 하는 종교적 명(明)의 결과에서 종교적 경험의 세계를 종종 발견하게되며 과학적 사실 증명의 세속적 차원을 초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순사상에 있어서는 인류구원이 있으려면 하늘과 땅의 고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고름의 작업 즉 하늘과 땅의 평탄작업을 일러서 삼계공사라 한다.

증산이 기유년(己酉;1909) 정월에 종필했다⁶⁷⁾고 전하는 현무경(玄武經)에는 기초동량(基礎棟樑)이라는 용어가 보이며 이 현무경은 그의 화천(化天) 후 제자였던 김형렬과 차경석에 의해 필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⁶⁸⁾ 이 현무경은 부(符)에 필서가 되어 있으며 더러는 반서체(反書體)로 작성된 일종의 비서(秘書)이다. 이에 의하면 공사는 기초동량(基礎棟樑)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기초공정에서는 집을 세우려면 낡은 것을 허물고 터를 새롭게 다지는

65) 전경, 행록 3-23.

66) 장병길(1989), 앞의 책, pp.95-100 참조.

67) 상제께서 기유(己酉)년 정월 일일 사시(巳時)에 현무경(玄武經) 세 벌을 종필하고 한 벌은 친히 품속에 지니고 한 벌은 도창현(道昌峴)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한 벌은 경석의 집에 맡기셨도다.(전경, 교운 1-66)

68) 치상 후에 형렬과 경석은 상제의 부친을 모시고 객망리에 가서 모친을 조문하고 다시 정읍 대흥리에 가서 상제께서 간수하신 현무경(玄武經)을 옮겨 썼도다.(전경, 행록 5-37)

것과 같이, 낡은 세계를 뜯고 허물어 버리는 공사를 의미한다. 동량공정에서는 마룻대를 올리고 대들보를 올리는 등 집의 골격을 세우는 공정과 같이 새로운 세계를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초공정에서 옛 것이 회수되고 그 후에 후천이라는 종교적 이상세계가 열리게 된다.

기초공정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⁶⁹⁾라는 종교사상에 근거한다.

고르지 못한 모든 사상(事象)은 증산의 공사에 의하여 뜯겨지고 소멸되어서 새로운 질서에 의해 교체되고 조성된다. 또한 여기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이상세계로 향하는 시점이 바로 현재라는 역(易)사상에 있어서의 시운(時運)에 대한 관념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 시운에는 새 법칙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시운의 전환에 관해서 증산은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⁷⁰⁾라고 기록하고 있다. 후천에서 세계의 창생들을 광구(匡救)하기 위한 방편이 선천의 도수(度數)를 뜯어 고쳐 상생의 도수를 회전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질서의 일대 회전이 시운의 전환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선천의 도수를 뜯는다는 것은 선천이라는 현실세계를 운행하는 지배 법리나 질서를 교체또는 전환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는 후천이라는 이상세계를 지향하여 새질서의 재정립 개념인 도수의 재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후천도수를 선천도수의 자리로 교체시킴으로써 선천도수는 소멸되는 것이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는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도수가 운회(運回)하는 운로(運路)를 뜯고 새롭게 갱정하는 것이며 선천에서의 양과 음이 교행하게 배열되거나 서로 배척했던 현상을 음과 양이 동행하도록 운로를 조정한 것이다. 또한 건(乾)이 곤(坤)을 쫓거나 곤이 건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건도가 소(消)하고 곤도가 장(壯)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공간과 시간이 교체되어 천문(天文)은 고르게 되고⁷¹⁾ 새로운 세계질

69) 전경, 공사 1-3.

70) 전경, 예시 6.

71) 장병길(1989), 앞의 책, p.104.

서의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⁷²⁾

그러므로 새 세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동량의 공정은⁷³⁾ 천문이 교체된 다음에 새로운 천문을 갱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낡은 질서는 물러가고 선경의 무궁한 새질서는 인간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V. 맺음말

천지공사란 세상을 구제하는 역사를 일러 말하는 어휘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공정에서 짐작할 수 있었던 대로 자연의 운행과 인간의 삶을 전환하고 조절하며 인간과 초인간적 관계의 불상사를 유화(宥和)하거나 혹은 위무(慰撫)하는 종교적 경험의 세계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인간은 자연의 운행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신축성이 있거나 또는 가변적이어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가 자연운행의 경로에서 범람하기 쉬운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인간에 유익하게 자연 운행의 조절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우선 예상한다. 이 전제되는 태도는 자연운행에 신축성이 없고 조금도 변할 수도 없으며 바꾸어질 수도 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과학(科學)의 태도와는 다르다.

우주에 관한 이 상반된 두 견해 차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의식적이고 인격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필연적이며 비인격적인가의 근본문제에 달려 있다. 종교는 초인간적인 힘의 유화로 기울어 전자를 전제하며 대순사상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선·후천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정의하면 ‘우주의

72) 천지가 간방(艮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二十四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 (전경, 예시 50)

73) 현무경의 허령부(虛靈符)와 지각부(知覺符)와 신명부(神明符)의 세 부도 속에는 반서체(反書體)로 된 무이구곡(武夷九曲)의 글자가 있다. 그 글이나 숫자나 부(符)는 낙서(洛書)의 구궁(九宮)을 토대로 짜인 것이며 구궁과 무이(武夷)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무이의 무(武)는 북(北)의 육계수(六癸水)를 말하고, 이(夷)는 고르다(均)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르다는 것은 아홉의 궁(宮)이 어떤 방위에서 시작하여 어떤 방위에서 그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홉 궁이 모두 한꺼번에 발(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이구곡은 부도(符圖)에서 땅을 상징하는 것이며, 무이구곡의 지기(地氣)를 발음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명부 속에 있는 무이구곡은 신명계를 무이구곡과 맞추어 신명과 땅이 서로 공생(共生)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장병길(1989), 앞의 책, pp.107-109 참조.)

법칙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전환'됨을 그 주용 내용의 특징으로 삼고 있다.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74)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75)

증산은 선천시대의 법리적 상극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고 모든 인사가 도의에 맞지 않아 원한을 과생시키고 이러한 원한이 삼계에 누적되어 현실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인과적 구조로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긴장과 해체상황의 원인을 원한관계로 해석한 증산은 이러한 사회를 재통합시키기 위하여 모든 원한을 풀어 없애는 일이 가능할 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며, 이러한 새 세상에서 비로소 인간 또한 완성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원한을 품게되는 원인은 반상(班常)의 구별, 적서(嫡庶)의 차별, 남존여비(男尊女卑), 빈부의 격차,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억압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인이나 타집단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경쟁의 결과이다. 이러한 경쟁은 욕망을 낳으며, 욕망은 또 다른 경쟁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현실세계는 시기와 질투, 반목과 투쟁이 난무한 진멸지경의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이처럼 선천을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세계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천의 문제점을 극복한 이상적인 세계를 후천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76)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

74) 전경, 교법 3-34.

75) 전경, 공사 1-3.

76) 전경, 예시 80.

써 창생을 범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베풀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⁷⁷⁾

후천선경에서는 그 동안 왜곡되어진 인간의 도덕과 도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원시반본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질서와 체계가,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형되고 왜곡됨으로써 파생되었던 인류의 문제를 근원의 세계로 되돌림으로써 해결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천선경은 정치적 안정과 만인평등이 실현된 인존의 시대이며,⁷⁸⁾ 경제적 안정과 경제정의가 실현된 풍요의 세계이고⁷⁹⁾, 사회·문화·종교적 갈등이 해소된 통일의 시대이다.⁸⁰⁾

따라서 후천선경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인존시대이다. 이것은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자원의 균등한 분배라는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니, 경제적 부의 획득이 건전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적 정의가 구현되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언어, 문화, 종교, 사상 등의 통일은 선천에서의 상극상을 바로잡아 현실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도통진경의 후천선경 세상은 진리로 통하는 완전한 이상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순사상이 오늘날의 인류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는 그 동안 인류가 세계변화의 노정에서 풀어왔던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증산의 천하대순과 삼계공사의 과정에서 비로소 제시되었다는 점과 그 결과, 인류의 미래가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다.

77) 전경, 예시 81.

78) 전경, 교법 1-2, 9, 10, 67; 예시81 참조.

79) 전경, 교법 1-63, 64; 교법 3-35; 예시 80 참조.

80) 전경, 공사 3-5; 교법 3-23; 교운 1-65; 예시 8, 12, 51 참조.